

# 간호법 제정

철도경영학과 202310278 권도훈

## 1. 서론

최근 현행 의료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그중 간호법은 찬성과 반대 양자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문제이다. 본 글에서는 다양한 간호업무 역할을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과점에서 간호법에 대한 입장을 근거를 들어 논하고자 한다. 우선 이 간호법에 대한 찬성 입장에서는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 간호사 양성을 위한 법률 또한 간호종합계획, 간호사의 현장배치, 간호사의 업무 영역 확대, 간호사의 인권침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데, 이는 현재 대한 간호협회의 설문 조사로 알 수 있는 간호사들의 과중한 업무량 및 어려운 업무, 낮은 임금, 불규칙한 근무시간, 과도한 야근 등 의 문제로 병원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하는 이유를 해결해줄수있는 방안이 때문이다. 또 다른 핵심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환경을 개선하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여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간호와 돌봄이 중요해졌고 이런 사회적 변화에 간호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있기때문이다. 간호법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는 대표적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으로 나뉜다.

## 2. 본론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간호사 양성을 위한 법률 이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나는 이러한 간호법제정에 대해 찬성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현재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간호법이 없는 상태이고 간호법이 있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90개국이나 된다. 또한 중요한 이유로는 현재 대한 간호협회의 설문조사 결과로 간호사들이 '향후 1년 내에 다니던 병원을 떠나려 고민하고 있다' 라는 질문에 '그렇다' 라고 답변한 간호사들이 67.4% 나 된다. 병원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한 이유중 과중한 업무량 및 어려운 업무가 19.0%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간호사 업무 범위의 불명료성 문제로도 볼수있다. 이에 대해 본론의 첫 장에서 다루어보겠다. 이후 불규칙한 근무시간, 과도한 야근 등 이 15.7% 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현재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나온다고 생각이든다. 이에 대해 본론의 두번째 장에서 다루어보겠다.

### 2.1 (소주제): 간호사 업무 범위의 불명료성

간호사의 역할은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거나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의 회복, 유지와 증진을 돕는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2017년 이래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고령화된 인구가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는중인데,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다. 현재 간호사들은 자신의 역할을 벗어나 의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간호사들이 의사 ID(신분증)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줄 약을 대신 처방하고, 병원에 약사가 없어 조제까지 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절감을위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을 고용하지 않아 채혈가 X-ray 촬영 까지 하는 일이 비밀비재하다. 이렇게 확인할수 있드시 현재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는 불명확 하다.

## 2.2 (소주제):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현재 한국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간호사 1명이 평균 16.3명의 환자를 케어한다.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당 환자가 43.6명이나 된다. 미국(5.7), 스웨덴(5.4), 노르웨이(3.7) 등과 비교하면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케어하는 환자수가 훨씬 많다는걸 알수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간호사 1명당 환자 2.5명을 배치해야 하지만 유명무실하다. 그리고 간호사들은 인력이 부족해 정기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근무를 하게되고, 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와 3교대를 버티고있다. 또한 인수인계를 하다 보면 근무시간 외에 더 일하게 되는데, 초과근무가 일상이 되어 있는데도 제대로 된 보상은 주어지지 않고있다. 또 주목해야할 항목은 간호사의 인권침해인데, 간호사들 사이의 악폐습으로 알려진 태움으로 영혼이 재가 될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로 일을 알려준다는 명목하에 괴롭히는 것을 말한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이들을 법률적으로 막겠다는뜻이다. 현재 이렇듯 간호사들은 높은 노동강도에 낮은 처우를 받고있다.

## 3. 반론/재반론

현재 이렇게 좋아보이는 법안이 왜 큰 이슈가 되는지 쟁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 3.1 반론

현재 대한 간호조무사협회 에서는 간호법이제정되었을때 응시 자격 제한을 통한 평등권 침해 쉽게말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 한다는 것을 두고 반대의견을 펼쳤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으로는 어느 법률에서도 응시자격 인정 요건을 고졸로 제한하지 않고 (미용사, 조리사, 동물보건사 등)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만 학원,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안하여 간호조무사 전무대학교 양성을 법률로 막아버린다는것이다. 또한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의 처우는 더 나빠진다는 주장이다.

### 3.2 재반론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될시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해 차별한다고 주장하는 말을 사실이 아니다. 고졸 취업을 확대.유도하는 정책 기초에 맞고 직무 수준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고졸 적합 업무인 간호조무사는 현행대로 직업계고 및 민간학원 등에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육부가 직접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 평생교육시설, 간호학원, 간호대학 과정 등의 이수자가 시험을 거쳐 자격취득이 가능하므로 고졸자로 제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간호법이 통과될시 간호조무사의 처우는 더욱 나빠지는것이 아니라 더욱 좋아진다고 봐야한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10명중 6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간호조무사협회 2021년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간호인력을 위한 상생법이다.

#### 4. 결론

현재 여야에서 발의한 간호법과 간호 및 조산법이 지난 4월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간호법은 의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간호사들이 의사 ID(신분증)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줄 약을 대신 처방하고, 병원에 약사가 없어 조세까지 하는 등 간호사 업무 범위의 불명료성, 또한 인력이 부족해 정기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등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같이 내용을 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놓고 시작이되었다. 또한 현재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만 학원,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안하여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법률로 막아버리는 등 응시 자격 제한을 통한 평등권 침해 를 주장하는데 간호사협회에서는 고졸 취업을 확대,유도하는 정책 기조에 맞고 직무 수준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고졸 적합 업무인 간호조무사는 현행대로 직업계고 및 민간학원 등에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육부가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 평생교육시설, 간호학원, 간호대학 과정 등의 이수자가 시험을 거쳐 자격취득이 가능하므로 고졸자로 제한하지 않음 등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해 차별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또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환경을 개선하고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여 환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할수 있고, 현재 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되면서 간호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은 더 높아지게 될텐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다. 간호법 제정은 이런 사회적 변화속에서 간호사 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찬반여론도 나뉘지고 있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면서 적정선을 찾아가고 있는데,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간호법이 통과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되었으면 한다.

#### 5. 참고문헌

<https://blog.naver.com/namganu/223093486732>

<https://blog.naver.com/chae3322/223105122255>